

성차별주의(sexism) 중심의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분석

구본상 ■ 충북대학교*
최준영 ■ 인하대학교**
김준석 ■ 동국대학교***

〈국문요약〉

본 연구는 2021년 4월에 치러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대상으로 성차별적 인식 수준이 성추행 논란을 통해 보궐선거 원인을 제공한 전임 서울시장의 시정운영 평가 및 보궐선거 후보 선택에서 유의한 차이를 만드는지 설문조사 결과를 사용하여 경험적으로 검증하였다. 이를 위해 현대적 성차별주의(MS), 적대적 성차별주의(HS), 그리고 온정적 성차별주의(BS) 수준을 측정된 변수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그 결과 보궐선거라는 특수한 맥락까지 고려하였음에도 성차별주의가 유권자의 후보 선택은 물론 단체장의 시정운영 평가를 설명할 수 있는 변수라는 점을 확인하였다. 우선 현대적 성차별주의 시각은 보수 야당을 더 성차별적이라고 보는 기존 정당 인식과 연계되어 있고, 적대적 성차별주의 수준이 높은 유권자는 여성 후보 선택에는 부정적이며, 여당 소속 여성 후보에 대한 지지는 세 개의 성차별주의 가운데 온정적 성차별주의에 기반을 두고 있었다. 또한, 현대적 성차별주의는 진보층이 박원순 시장의 시정을 덜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에 약하게나마 일조하며, 박원순 전 시장의 시정운영을 평가할 때 성차별주의는 이념 성향과 연계되어 나타나는데, 그 연결 강도는 적대적 성차별주의에서 가장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성차별주의는 이념 성향(정책 태도)과 연계될 때 시정운영 평가에 뚜렷한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음이 드러났고, 이는 정치적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는 한국의 정치 현실에 중요한 함의를 제공한다.

*주제어: 현대적 성차별주의, 적대적 성차별주의, 온정적 성차별주의, 보궐선거, 이념

* 주저자. 구본상. 충북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조교수 (E-mail: bsk245@gmail.com)

** 공동저자. 최준영. 인하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E-mail: junchoi88@inha.ac.kr)

이 논문은 2021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학중앙연구원(한국학진흥사업단)을 통해 K학술확산연구조사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AKS-2021-KDA-1250005).

*** 교신저자. 김준석. 동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E-mail: jspicture@dongguk.edu)

I. 서론

2021년 4월 7일, 1년여 남짓 임기의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을 위한 보궐선거가 치러졌다. 공교롭게도 두 선거의 원인은 전임 시장의 성추행과 관련이 있었다. 그러나 선거운동 초기에 보궐선거 원인 제공 정당이 후보를 내서는 안 된다는 규범적 주장은 있었지만, 선거운동이 격화된 이후 LH 직원들의 부정행위 등 굵직한 사건들이 터지면서 전임 시장의 성추행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지는 않았다. 선거가 치러진 이후에도 20대 남성의 보수 후보 지지, 대통령과 여당에 대한 심판 등 휘발성 높은 쟁점만 주목받았을 뿐 정작 선거 자체의 원인이었던 성추행에 관한 유권자의 인식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에 관한 체계적 분석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결과 자체가 지니는 정치적 의미에 매몰되기보다 좀 더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볼 시점이다. 유권자의 성차별주의적 시각이 전임 시장의 시정운영 평가 및 그들의 후보 선택과 연관이 있을까? 좀 더 구체적으로는 보궐선거의 원인을 제공한 전임 서울시장의 시정 운영에 대한 평가 및 후보 선택은 성차별주의 수준에 따라 달라지는가? 즉 성평등 인식 수준이 높은 유권자는 보궐선거의 원인을 제공한 전임 시장의 국정운영을 더 부정적으로 평가하며, 그 원인을 제공한 정당(더불어민주당) 소속 후보 선택을 주저하는가?

이러한 질문에 관한 답을 얻기는 쉽지 않다. 왜냐하면, 분석을 어렵게 만드는 여러 요인이 이번 선거에 내재해 있기 때문이다. 우선 보궐선거의 원인을 제공한 정당(더불어민주당)이 여성 시장 후보를 냈다. 반면, 보수 야당은 지금까지 성평등 관련 쟁점에서 더 부정적인 평가를 받아왔다. 무엇보다 전임 서울시장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기에 그에게 엄격한 잣대를 대는 것을 인간적으로 주저할 수도 있다. 그뿐만 아니라 보궐선거가 가지는 특수성, 즉 정치적 관심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진다는 점, 전임 시장의 시정운영 평가보다는 중앙정부의 국정운영 평가가 더 중요할 수 있다는 점 등을 모두 고려해야만 한다.

본 연구는 성평등에 관한 인식은 생물학적 성별을 넘어 형성될 수 있음에 주목하여 이 문제에 접근한다. 즉 일반적으로 남성보다 여성의 성평등 인식 수준이 더 높지만, 남성 내에서도 성평등 인식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또한, 성차별적 시각은 남성에서 더 두드러질 수 있으나 여성 역시 성차별적 시각에 익숙해졌을 수 있다. 이처럼 생물학적 성 구분만으로 성평등 혹은 성차별적 인식을 후보 선택이나 시정운영 평가와 연계해 분석하는 것은 한계를 지닌다.

이에 본 연구는 다양한 성차별적 인식 수준을 측정할 변수를 분석에 사용하고자 한다.

본 논문의 진행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유권자의 투표행태와 성차별주의에 관한 선행연구를 검토한다. 특히, 분석을 위해 스윌 외(1995)가 정의한 현대적 성차별주의(modern sexism) 외에 글릭과 피스케(1996; 2001)가 제시한 양가적 성차별주의(ambivalent sexism), 즉 적대적 성차별주의(hostile sexism)와 온정적 성차별주의(benevolent sexism)를 검토한다. 3장에서는 각 성차별주의와 관련된 관련 가설을 제시하고, 이를 검증하기 위해 사용할 설문조사 데이터, 측정 변수 등을 소개한다. 4장은 통계분석 결과를 제시한다. 5장은 검증 결과를 요약하고, 그 함의를 제시한다.

II. 성차별주의와 투표행태

성차별주의는 남성과 비교해 불평등하고 불공정하게 여성을 대하는 것을 뜻한다. 이는 노골적으로 드러나기도 하지만, 의도적으로 숨겨지기도 한다. 또한, 일상적인 것, 또는 규범적인 것으로 여겨져 당사자들도 차별적 대우로 인식하지 못하는 미묘한(subtle) 모습을 띠기도 한다(Swim et al. 2004, 117). 이처럼 심리학 연구에서는 다양한 성차별주의 개념이 존재한다(Masser & Abrams 1999).

본 연구는 다양한 성차별주의 개념 가운데 현대적 성차별주의(modern sexism, MS), 적대적 성차별주의(hostile sexism, HS), 온정적 성차별주의(benevolent sexism, BS) 개념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세 가지 성차별주의 개념은 완전히 상호배타적인 개념은 아니다. 따라서 세 개념을 관통하는 특성이 있을 수도 있고, 두 개 개념이 공유하는 특성이 있을 수도 있고, 각 개념이 고유하게 설명하는 특성이 있을 수도 있다.

스윌 외(1995)는 구식 성차별주의(old-fashioned sexism)와 구별된 개념으로 현대적 성차별주의를 제시하였다. 현대적 성차별주의 시각은 자신이 속한 사회에서 성차별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을 아예 부정하고, 오히려 여성에게 특혜가 주어지고 있다는 것에 분노하는 것이다. 즉 전통적 성역할과 고정관념은 거부하지만, 이미 성평등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성을 위한 특별한 대책에 대해서는 반대한다. 유럽 및 선진 민주주의 연구에 따르면 주로 젊은 층에서 현대적 성차별주의 시각이 감지된다(Bornatici et al. 2020). 최근 한국에서 젊은 층

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여성가족부 폐지 논란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현대적 성차별주의와는 구별되는 전통적 성차별주의의 기저에는 여성에 관한 편견이 자리 잡고 있다. 즉 이들은 여성이 여러 면에서 남성과 비교해 부족하므로 남성을 중심으로 한 권력 구조와 사회 운영을 자연스러운 것으로 본다. 따라서 성차별주의 시각이 강할수록 남성 중심 전통에 도전하는 여성에 부정적이고, 이들을 제지 또는 차별하는 것에도 기꺼이 찬성하는 경향을 보이리라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여성에 대한 차별적 인식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현대 민주주의에서 성차별적 인식을 단일한 차원으로 이해하는 것은 한계를 드러낸다.

글릭과 피스케(1996; 2001)는 여성에 대한 편견에 관한 새로운 차원을 제시하였다. 이들은 성차별주의를 적대적 성차별주의와 온정적 성차별주의라는 양가적 특성을 가진 것으로 보았다. 즉 여성에 대한 편견을 적대적 차원에서만 보던 기존의 관점을 넘어 온정적인 차원의 가능성에 주목한 것이다. 이는 전통에 도전하는 여성을 처벌하려는 태도를 보이는 적대적 성차별주의와 구별된다. 온정적 성차별주의는 사회에 뿌리내린 전통적인 여성상에는 동조하지만, 주관적으로는 여성에 긍정적이며 이들을 친밀하게 대하고자 한다. 즉 온정적 차별주의 시각을 가진 사람들은 여성이 가사 및 육아에 주된 책임이 있다는 전통적 고정관념을 가지고는 있지만, 여성을 보호해야 하는 대상이며 남성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주는 존재로 보기에 이들에게 호의적인 태도를 보이게 된다. 글릭 외(2000)는 19개 국가로 확대한 연구를 통해 양가적 성차별주의가 보편적인 현상일 수 있음을 경험적으로 입증해 보였다.

여성의 역할이 확대되는 현대 사회에서 적대적 성차별주의보다는 온정적 성차별주의에 대한 거부감이 상대적으로 덜한데, 이는 온정적 성차별주의가 극단적인 남녀 갈등을 피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역시 성평등보다는 성차별을 고착화하는 것에 기여한다. 이는 온정적 성차별주의와 우익권위주의(right-wing authoritarianism, RWA) 간 관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우익권위주의는 내집단(in-group)의 사회 규범이나 전통 유지를 중요하게 여긴다(Altemeyer 1981; 1998). 따라서 사회 내에 존재하는 전통적 역할에 관한 선호를 잘 설명한다. 그러나 크리스토퍼와 우지다(2008)는 온정적 성차별주의 변수를 포함한 매개분석을 통해 우익권위주의와 전통적 성역할에 관한 선호 관계가 크게 약해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온정적 성차별주의가 남성 중심의 권력구조와 전통적 성 역할 인식에 기반을 두고 있음을 뜻한다. 결국, 온정적 성차별주의는

사회 구조적 성 불평등을 근원적으로 개선하기보다는 여성의 저항을 줄여 적대적 성차별주의를 보완한다. 이러한 점에서 온정적 성차별주의는 교묘한 형태의 성차별주의라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Barreto & Ellemers 2005).

다양한 성차별주의 개념을 유권자의 정치행태와 연계한 다수의 해외 연구를 찾을 수 있다. 특히, 여성 후보인 힐러리 클린턴(Hillary Clinton)과 성추행 폭로로 얼룩졌던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후보가 맞붙은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 이후 유권자의 정치행태를 성차별주의와 연계한 연구들이 두드러졌다. 발렌티노 외(2018)는 권위주의 성향, 정당일체감 및 기저 성향을 통제한 상태에서도 적대적 성차별주의는 미국 유권자들의 후보 선택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래틀리프 외(2019)는 온정적 성차별주의가 트럼프 후보에 대한 선호와 관련 있음을 보였다. 반면, 케세시와 홀먼(2019)은 트럼프 후보의 여성 비하 발언이 적대적 성차별주의에 반응하면 여성 후보인 클린턴에 대한 적대적 태도를 강화하지만, 온정적 성차별주의에 반응하면 클린턴 후보에 대한 지지를 늘렸다는 결과를 발표하였다.

국내에서는 안상수 외(2005)가 글릭과 피스케의 양가적 성차별주의 척도(ambivalent sexism inventory, ASI)를 한국 실정에 맞게 만든 K-ASI를 개발한 이후 이와 관련한 연구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를 정치행태를 설명하는 것에 사용한 연구는 드물었다. 안미영 외(2005)의 연구는 성차별주의와 여성 지도자에 관한 평가 간 관계를 역할 일치 이론에 근거해 설명하고자 했다. 이들의 연구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여성에 대한 온정적 성차별 태도를 지닐수록 여성 지도자를 전반적으로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온정적 성차별의 영향력은 특히 여성 응답자가 민주적인 여성 지도자를 평가할 때 두드러졌다. 또한, 남녀를 불문하고 여성에 강한 적대적 성차별 태도를 보일수록 민주적 여성 지도자보다 비민주적 여성 지도자가 더 능력을 지녔다고 평가하였다.

성차별주의와 유권자의 정치행태에 관한 연구는 2020년대 들어서야 나타난다. 김기동 외(2020)는 선거운동 기간 중 여성 비하 발언과 같은 젠더 관련 쟁점이 떠오를 때 양가적 성차별주의에 따라 가상의 성차별적 정치 엘리트에 대한 평가에서 어떠한 차이가 나타나는지 확인하였다. 실험 결과에 따르면, 적대적 성차별주의는 직접적·적극적으로 성차별적 정치 엘리트에 반응하는 반면, 온정적 성차별주의는 간접적·소극적으로 동조하는 경향을 보였다.

성차별적 인식이 실제 대선 후보 가운데 선택하는 것과 연계되었는지를 분석한 구분상(2021)은 제19대 대통령선거에서 온정적 성차별주의는 페미니스트 대통령을 표방한 문재인 후보 선택과 정의 상관관계에 있음을 보였다. 반면, 적대

적 성차별주의 시각을 가졌을수록 선거운동 기간 성차별적 시각으로 비난받은 홍준표 후보를 선택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확인하였다.

종합하면, 2000년대 중반 성차별주의 척도 개발 후 국내에서는 이를 활용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었으나 아직 적용의 범위가 정치 영역에까지 충분히 확대되지 못했다. 이러한 점에서 보궐선거에서 다양한 성차별주의와 유권자의 후보 선택 간 연관성을 검증하는 본 연구는 의미를 지닌다.

다만, 성차별주의와 2021년 서울시장 후보 선택 간 연계에 관한 엄격한 검증을 위해 보궐선거가 가진 특수성을 통제해야 한다. 보궐선거 투표 결정요인에 관한 선행연구에서 드러난 가장 큰 특징은 보궐선거는 중앙정부에 대한 ‘중간평가’ 또는 ‘선거전초전’ 등 중앙정치적 의미가 부여된다는 점이다(진영재·조진만 2002). 물론 지역주의 선거행태도 여전히 확인되기는 하지만 그 강도는 약해진 것으로 나타난다(조진만 외 2006; 최준영·조진만 2011).

위의 선행연구들은 한국 보궐선거 이해에 기여했으나 개인 수준 데이터가 부족한 상태에서 집합 수준 데이터에 의존했고, 이는 여러 측면에서 분석의 한계로 이어졌다. 특히, 중앙정부에 대한 평가가 중요하다라는 결론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에 대한 평가를 측정할 수 있는 변수는 매우 제한적이었다. 또한, 집합 수준의 데이터만으로는 선거가 치러지는 시점에서의 정치환경 요인이나 정당일체감이나 이념과 같은 개인 수준의 특성은 아예 통제될 수 없었다. 결국, 엄밀한 수준에서의 성차별주의와 보궐선거 후보 선택 간 관계에 관한 가설 검증은 중앙정치 변수는 물론 개인 수준의 변수들이 통제될 때 가능함을 유념해야 한다.

Ⅲ. 연구 설계

1. 가설 설정

한국에서 서울시장은 잠재적 대선 후보로 거론될 정도로 중요한 선출직이다. 남성 중심적 한국 정치환경에서 여성이 경선을 통해 유력 정당의 서울시장 후보에 선정되었다면, 그 여성 후보의 능력 자체는 충분히 인정받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적대적 성차별주의 수준이 높은 경우 이러한 여성 후보 자체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보일 수 있다. 반면, 온정적 성차별주의 수준이 높다고 해서 여성 후보 자체에 대해 부정적이리라 기대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여성 후보를 전통에 도전하는 존재로 인식하는 적대적 성차별주의와는 달리 온정적 성차별주의는

개인적으로 여성 후보 개인에 대해서는 호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Glick & Fiske 1996). 따라서 양가적 성차별주의와 관련해 다음과 같은 가설을 도출해 볼 수 있다.

[가설1] 양가적 성차별주의 중 적대적 성차별주의 수준이 높은 경우에만 여성 후보를 선택할 가능성이 작게 나타난다

비록 전통적 성역할은 거부하지만, 사회 내에서 여성에 대한 차별과 위력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부정하는 현대적 성차별주의 수준이 높은 유권자를 가정해 보자. 이들은 박원순 시장 성추행 피해자의 주장에 덜 공감할 가능성이 크다. 오히려 비서직 공무원 성추행 논란으로 시정 최고 책임자인 시장이 자살을 선택했다는 사실 자체가 직장 내 여성에 대한 위력 행사가 제한적이라는 것을 방증한다고 인식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이들은 성추행 논란으로 보궐선거의 원인을 제공한 정당 소속 후보를 선택하는 것에 덜 부정적일 수 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현대적 성차별주의 관련 가설을 도출해 볼 수 있다.

[가설2] 현대적 성차별주의 수준이 높은 유권자는 성추행 문제로 보궐선거 원인을 제공한 정당 소속 후보를 선택하는 것을 덜 주저할 것이다

그러나 현대적 성차별주의 수준과 관련해 한국 정당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그동안 보수정당이 성차별주의적 시각을 가졌다는 사회 전반의 인식이다.¹⁾ 따라서 성평등 인식 수준이 높은(즉 현대적 성차별주의 수준이 낮은) 유권자는 보수정당 소속 후보 선택을 주저할 수도 있다. 정리하면, 현대적 성차별주의 수준이 높은 유권자는 그동안 성평등 인식 수준이 낮다고 평가받아온(보수) 정당 소속 후보를 선택하는 것에 덜 부정적일 수도 있다. 이 경우 [가설2]와 반대되는 결과를 예상해 볼 수 있다.

이제 전임 서울시장의 시정운영 평가를 종속변수로 둔 가설을 검토해 보겠다. 박원순 전임 시장이 한 직원을 지속해서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서울시 내부에서 제기되었고, 이것이 대중에게 공개되기 전 박 전 시장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박 전 시장의 공과에 대한 평가는 성과성을 비롯해 다양한 요인에 의해 형성될

1) 예를 들어, 2017년 보수정당인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선 후보는 선거운동 기간 내내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에 시달렸다. 일명 ‘돼지홍분계’를 사용한 강간 모의 가담 여부, 그리고 설거지와 관련한 여성비하 논란을 일으켰다(이하나 2017).

수 있다. 성추행 혐의로 박 전 시장을 고소한 직원을 몇몇 여당 의원들이 ‘피해 호소인’으로 부르자 이에 여성계가 강하게 반발하였고, 야당이 뛰어들면서 이 문제는 정치 쟁점화되었다(정성조 2020). 특히, 보수정당인 미래통합당은 물론 진보 성향이 강한 정의당에서도 강력하게 반발하였다. 이처럼 박 전 시장의 공과를 평가할 때 성평등 인식은 이념적 혹은 정파적 입장과 연결될 수 있다. 이때 현대적 성차별주의 수준이 높은 진보적 유권자들은 내적 갈등 상황에 부닥칠 수 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이념과 현대적 성차별주의 수준을 연계한 가설을 도출할 수 있다.

[가설3] 현대적 성차별주의 수준이 높은 진보 성향의 유권자는 성추행 의혹을 일으킨 박원순 시장의 시정을 덜 부정적으로 평가할 것이다

현대적 성차별주의뿐만 아니라 양가적 성차별주의도 이념적(혹은 정파적) 입장에 따라 다르게 박 전 시장의 시정운영 평가와 연계될 수 있다. 즉 기본적으로 보수 성향의 유권자가 진보 성향의 유권자보다 진보적인 박 전 시장의 시정운영을 부정적으로 평가할 것이지만, 이는 성차별주의 수준에 따라 조절될 수 있다. 특히, 기존 성 역할을 강하게 지지하는 적대적 성차별주의가 보수 이념 성향과 결합하면, 진보적 서울시장의 시정운영을 더욱 부정적으로 평가하도록 할 수 있다. 특히, 보수 성향의 유권자가 동성애 문제와 관련해 진보 성향을 보였던 박원순 시장의 시정 운영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가능성은 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²⁾ 반면, 이러한 경향성은 온정적 성차별주의에서는 상대적으로 약하게 나타나거나 아예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러한 논리에 따라 다음과 같은 가설을 도출해 볼 수 있다.

[가설4] 보수 성향 유권자의 박원순 시장의 시정 운영에 대한 부정적 평가 경향은 양가적 성차별주의 가운데 적대적 성차별주의 수준이 높을 때 더 뚜렷해질 것이다.

2. 데이터 및 변수

본 연구는 한국정당학회와 케이스탯리서치가 공동으로 시행한 설문조사 결과

2) 기독교계를 중심으로 보수적 시민단체들은 서울시청광장에서 성 소수자 축제를 허가한 박원순 시장을 직권남용죄와 직무유기죄로 고발했다(김진영 2018).

를 사용한다. 설문조사는 보궐선거 직후인 2021년 4월 12일부터 15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되었다. 주민등록상 성별·연령대별·지역(서울시 4개 권역)별 인구를 기준으로 할당한 후 표본을 추출했고, 최종적으로 1,000명의 응답 결과를 얻었다. 선거 후 설문조사의 일반적 특성처럼 투표에 참여하였다고 답한 응답자 비율(92.2%)이 실제 투표율(58.2%)보다 훨씬 높다.³⁾ 그러나 후보별 선택 비율(오세훈 56.5%, 박영선 36.4%)은 실제 투표 결과(오세훈 57.5%, 박영선 39.2%)에 근접하였다. 따라서 실제 투표자를 모집단으로 상정한다면, 표본의 대표성은 충분하다고 판단한다.

본 연구는 가설 검증을 위해 두 개의 종속변수를 사용한다. [가설1]과 [가설2]는 여당 후보인 박영선 후보 선택 여부(“귀하는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어느 후보를 선택하셨습니다?”에 대한 응답)가 종속변수가 된다.⁴⁾ [가설3]과 [가설4]는 박원순 시장의 시정 운영에 관한 평가를 묻는 문항(“귀하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시정 운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을 4점 척도(1=매우 잘 못 했다, 2=대체로 잘 못 했다, 3=대체로 잘했다, 4=매우 잘했다)로 측정할 것을 종속변수로 설정한다.

통계분석에는 종속변수에 따라 두 가지 통계모형을 사용한다. 후보자 선택과 관련해서는 로지스틱 회귀모형을 사용한다. 시정운영 평가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순위형 로지스틱 회귀모형(ordinal logistic regression)을 사용하는데, 이는 종속변수가 서열변수(ordered variable)이기 때문이다.⁵⁾

본 연구는 성차별주의와 성평등주의 간 엄밀한 구분은 어렵다고 전제한다. 만약 성차별주의와 페미니즘이라는 구성개념을 명목변수(nominal variable)로 구체화하면, 경험적 검증은 매우 어려워진다. 본 연구는 그 둘을 연속선상에 둔 연속변수(continuous variable)로 구체화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전제한다. 즉 측정된 성차별주의 지수값이 낮을수록 성평등 인식이 강한 반면, 상대적으로 성차별적 인식은 약하다고 보아야 경험적 연구가 가능해진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⁶⁾

3) 위의 설문조사는 온라인(모바일 기기 접속 가능) 설문조사로 진행되어 모바일 기기 활용에 익숙하지 않은 70대 이상의 고령층이 표본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한계를 가진다.
 4) 선거에 참여했다고 응답한 사람들(92.2%)만 분석 대상으로 하고, 박영선 후보 선택은 1로, 나머지 후보 선택은 0으로 코딩하였다.
 5) 물론 박영선, 오세훈, 그리고 기타 후보 선택으로 구분하여 다항 로지스틱 회귀모형을 적용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때 다항 로지스틱 회귀모형을 사용하기 위한 조건인 ‘무관한 대안 간 독립성(independence of irrelevant alternatives, IIA) 가정’이 위반되기 쉽다는 한계를 지닌다.
 6) 한 심사자는 성차별주의와 페미니즘을 명목변수로 구분하고 있으나 이는 경험적 연구에 적용하기 어렵다. 예컨대, 0부터 1 사이에 값을 가지는 온정적 성차별주의 척도에서

이러한 전제하에 가설 검증에 사용할 핵심 설명변수로 세 가지 성차별주의를 사용한다. 첫째, 현대적 성차별주의(MS)는 우리 사회의 성평등 수준이 충분하다고 보기에 성평등에 관심이 덜하다는 특징을 보인다. 일반적으로 성차별주의는 성평등 인식과 부(-)의 상관관계에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양가적 성차별주의 가운데 적대적 성차별주의(HS)와의 관계에서만 나타난다. 오히려 성평등 인식은 온정적 성차별주의(BS)와는 일정한 관련성을 보이지 않는다. 온정적 성차별주의는 적대적 성차별주의를 완화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 젠더 갈등의 전면에 드러나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온정적 성차별주의 역시 가부장적 사회질서 유지에 기여한다는 점에서는 성평등 인식과 잠재적 갈등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설문조사는 세 개 문항에 대한 응답으로 성평등 인식을 측정하였다. 첫째, “귀하는 여성의 사회적 지위와 역할, 남녀평등 문제에 얼마나 관심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을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둘째, “한국 사회에는 아직 성불평등이 존재한다”라는 진술에 대한 동의를 4점 척도로 측정했다. 셋째, “성차별을 바로잡을 수 있는 제도의 강화가 필요하다”라는 진술에 대한 동의를 4점 척도로 측정했다. 세 문항에 대한 응답 값의 합을 0부터 1 사이의 값으로 변환하면, 이를 성평등 인식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성평등 인식과 현대적 성차별주의(MS)는 동전의 양면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1에서 성평등 인식 값을 빼주면 0에서 1 사이의 값이 나오는데, 이를 현대적 성차별주의 수준으로 간주할 수 있다.

양가적 성차별주의와 관련해서 안상수 외(2005)가 제시한 다수의 문항 가운데 본 연구는 6개 하위 요소(지배적 여성주의, 보호적 여성주의, 경쟁적 성 분화, 보완적 성 분화, 적대적 이성애, 친밀한 이성애)별로 높은 타당성을 보인 문항 1개씩 총 6개의 문항을 포함하였다.

다수의 K-ASI 가운데 요인적재량을 기준으로 문항을 선정하였다. 즉 요인분석 시행 후 6개 하위 요소별로 나뉜 문항 가운데 요인적재량이 가장 높은 문항을 선택하였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지배적 여성주의에 해당하는 문항 가운데 “대체로 모임의 리더는 남성이 맡는 것이 좋다”라는 문항을 선택했다.

0점만을 성평등주의자로 분류한다면, 실제 표본에서 그러한 응답자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온정적 성차별주의 지수를 사용하여 성차별주의와 페미니즘을 구별할 기준은 자의 적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일반적 개념의 페미니스트는 현대적 성차별주의 척도 및 온정적 성차별주의 척도에서 비교적 낮은 점수를 보이는 사람으로 보는 것이 더 현실에 부합한다.

둘째, 보호적 부성주의는 “여성은 가정을 돌보는 섬세함을 지니고 있다”라는 문항으로 측정한다. 셋째, 경쟁적 성 분화를 위한 문항은 “여권 운동가들은 남성들에게 터무니없이 무리한 요구를 한다”를 채택하였다. 넷째, 보완적 성 분화를 측정하기 위해 “여자는 가정을 돌보는 섬세함을 지니고 있다”를 채택하였다. 다섯째, 적대적 이성애에는 “여성들은 남자에게 애교를 부려 자기가 원하는 바를 얻으려고 한다”를 사용하였다. 마지막으로 친밀한 이성애에 해당하는 문항에는 “남자라면 사랑하는 여자가 있어야 한다”를 채택하였다. 각 문항은 6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 6=매우 그렇다)로 측정하였다. 최종적으로 사용한 적대적 성차별주의(HS) 변수는 지배적 부성주의, 경쟁적 성분화, 적대적 이성애의 3개 문항을 합한 후 0에서 1 사이의 값으로 재척도화한 것이고, 온정적 성차별주의(BS) 변수는 보호적 부성주의, 보완적 성분화, 친밀한 이성애를 같은 방식으로 변수화한 것이다.

전술하였듯이 강건한 통계적 검증을 위해 적절한 통제변수를 사용해야 한다.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대통령선거를 1년도 안 남기고 치러졌기에 유권자의 관심이 높았다. 우선 나이, 성별, 거주 지역(강남 3구)과 같은 인구학적 변수는 물론 교육 수준, 자산, 소득 수준, 주택 소유, 정규직 여부와 같은 사회경제적 지위도 기본적으로 고려해야 한다.⁷⁾

이 가운데 성차별주의 변수 외에 생물학적 성(sex)을 회귀모형에 포함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만약 여성 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반면, 성차별주의 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온다면, 이는 단순한 생물학적 성별보다는 성차별주의적 인식이 후보 선택에 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정치변수 중에는 정당일체감과 이념 외에 주요 정당에 대한 호감도를 통제변수로 회귀모형에 포함한다. 정당일체감은 유권자가 특정 정당에 지닌 심리적 애착이라고 볼 수 있다(Campbell et al. 1960). 특히, 지속성을 지닌다는 점에서 사건 및 환경 변화에 단기적으로 반응하는 단순한 정당 호감도와는 차별성을 가진다(박원호·신화용 2014).

본 연구는 지속성을 지닌 정당일체감은 물론 일시적 감정을 측정할 수 있는 정당호감도를 통제변수로 고려한다. 본 연구에서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보수

7) 나이는 5개 연령대로 나눈다(18세~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월평균 가구 소득은 응답자가 직접 기재하는 방식으로 측정한다(0~9,999만 원). 자산은 총 10개 구간(5천만 원 미만~9억 원 이상)으로 나누어 측정한다. 교육 수준은 최종학력을 기준으로 무학(=1)부터 대학원 박사 학위자(=8)로 측정한다.

정당인 국민의힘에 대한 호감도를 사용한다.

정당일체감은 두 번의 질문으로 측정한다. 우선 “귀하는 평소 친밀하게 느끼는 정당이 있으십니까?”라고 질문한 후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고 응답하면 “그렇더라도 다른 정당보다 조금이라도 더 친밀하게 느끼는 정당이 있으십니까?”라고 묻고, 그렇다고 응답하면 다시 “친밀하다고 느끼는 그 정당은 어느 정당입니까?”라고 묻는다. 처음에는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고 했으나 두 번째 질문에는 정당을 선택하는 사람을 ‘정당 편향 유권자’로 부를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편향 유권자도 정당일체감을 지닌 것으로 보고 정당일체감 보유자로 분류한다.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정당일체감과는 달리 응답 당시의 정당에 대한 감정을 측정하는 정당 호감도는 “다음 정당에 대해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느낌의 정도를 0에서 10점 사이의 숫자로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은 아주 싫어하는 경우이며, 5는 보통일 경우, 그리고 10은 아주 좋아하는 느낌을 말합니다”라는 문항에 대한 답변으로 측정한다.

정당일체감에 따라 후보 선택을 쉽게 예측해 볼 수 있는데, 더불어민주당에 정당일체감을 지닌 유권자는 다른 후보보다 박영선 후보를 선택할 가능성이 클 것이다. 반대로 보수정당인 국민의힘에 정당일체감을 지닌 유권자는 오세훈 후보에게 표를 줄 가능성이 클 것이다. 이러한 경향성은 정당 호감도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에 호감을 많이 느낄수록 박영선 후보에 투표했을 가능성이 크고, 국민의힘이나 국민의당에 호감이 강할수록 박영선 후보에 투표할 가능성은 작다.

이념 역시 한국 유권자들의 후보 선택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평가되어 왔다(최준영·조진만 2005). 본 연구는 유권자 스스로 진보·보수의 연속선상에 자신의 이념적 위치를 표시하는 방식 대신 5개 쟁점에 관한 태도를 측정한 후 0(진보)에서 1(보수)로 재척도화한 후 이를 이념변수로 사용한다.⁸⁾ 다른 조건이 같다면, 진보적 정책 태도를 지녔을수록 보수정당의 오세훈 후보에게 투표했을 가능성은 적으리라 예측해 볼 수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정치변수로서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를 확인한다. 선행연구에

8) 5개 쟁점에 관한 구체적인 문항은 다음과 같다: ‘복지 확대를 위해 증세해야 한다’, ‘정부는 북한 정권과의 대화와 타협에 나서야 한다’, ‘미국 중심의 외교정책에서 벗어나 독자적 외교노선을 추구해야 한다’, ‘동성애를 개인의 성적 취향으로 인정해야 한다’,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관련 세금을 인상해야 한다.’ 각 문항에 대한 응답을 4점 척도로 측정한다(1=매우 반대한다, 2=조금 반대한다, 3=조금 찬성한다, 4=매우 찬성한다).

서 드러났듯이 보궐선거는 중앙정치에 관한 평가 성격을 지닐 수 있다. 특히, 대통령 집권 말기에 치러지는 경우 현 정부에 대한 심판 의도가 반영될 수 있다. 따라서 대통령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4점 척도)를 통제변수로 고려한다. 현 대통령에 대해 긍정적인 유권자들은 여당 후보에게 긍정적인 가능성이 크고, 따라서 여당 후보를 선택할 가능성도 크리라 예상해 볼 수 있다. 이 외에도 부동산 정책과 백신 수급에 대한 평가, 그리고 국가 경제에 대한 회고적 평가도 함께 분석에 포함한다.

보궐선거가 서울이라는 지역에서 치러지는 상황을 고려한 변수도 포함한다. 우선 전임 시장이었던 박원순 시장의 시정 운영에 대한 평가와 그의 임기 동안 본인의 삶의 질(well-being)에 대한 평가도 고려한다.⁹⁾ 또한, 선거를 앞두고 불거진 쟁점에 대한 태도도 투표 선택을 설명할 수 있다. 여기에는 LH 사태가 후보 선택에 미친 영향과 오세훈 후보의 내곡동 땅 의혹에 관한 판단이 포함된다.¹⁰⁾ LH 사태를 심각하게 인식할수록 여당 후보를 선택할 가능성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야당 소속인 오세훈 후보의 내곡동 땅 의혹이 사실이라고 믿을수록 여당 후보에게 표를 줄 가능성도 크리라 예상해 볼 수 있다.

IV. 분석 결과

우선 본격적인 가설 검증에 앞서 핵심 설명변수인 현대적 성차별주의와 양가적 성차별주의 간 상관관계를 살펴보겠다. <표 1>은 세 측정값 간 상관계수를 보여준다. 현대적 성차별주의와 적대적 성차별주의는 상당한 수준의 정(+)의 상관관계를 보인다($r=0.42$). 역으로 말하면, 성평등 인식 수준이 높을수록 적대적

9) 박원순 시장의 시정운영 평가는 4점 척도(1=매우 잘 못 했다, 2=대체로 잘 못 했다, 3=대체로 잘 했다, 4=매우 잘 했다)로 측정된 변수이며, 삶의 질은 “귀하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임기 동안 귀하 본인의 삶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라는 문항에 대한 응답을 5점 척도(1=매우 나빠졌다, 2=약간 나빠졌다, 3=그대로다, 4=약간 좋아졌다, 5=매우 좋아졌다)로 측정된 것이다.

10) LH 사태에 대한 태도 변수는 “이번 LH 사태가 귀하의 투표 여부나 후보 선택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습니까?” 문항에 대한 응답을 4점 척도(1=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2=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3=약간 영향을 미쳤다, 4=크게 영향을 미쳤다)로 측정된 것이다. 오세훈 후보의 내곡동 땅에 대한 태도는 “귀하께서는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의 내곡동 땅 의혹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문항에 대한 응답을 4점 척도(1=전적으로 사실일 것이다, 2=어느 정도 사실일 것이다, 3=그다지 사실이 아닐 것이다, 4=전혀 사실이 아닐 것이다)로 측정된 변수를 사용한다.

성차별주의 수준은 낮아지는 경향성이 있다. 반면, 현대적 성차별주의와 온정적 성차별주의는 뚜렷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는다($r=0.07$). 그러나 적대적 성차별주의와 온정적 성차별주의는 상당한 정(+)의 상관관계에 있다($r=0.48$). 즉 양가적 성차별주의는 서로 연결되지만, 현대적 성차별주의와는 상당히 다른 수준의 연관성을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변수 간 상관관계 수준을 고려할 때 세 성차별주의 변수를 회귀모형에 설명변수로 동시에 포함하더라도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을 우려할 수준은 아님을 알 수 있다.

〈표 1〉 세 성차별주의 간 상관관계

	현대적 성차별주의(MS)	적대적 성차별주의(HS)	온정적 성차별주의(BS)
현대적 성차별주의(MS)	1.00	0.42	0.07
적대적 성차별주의(HS)		1.00	0.48
온정적 성차별주의(BS)			1.00

1. 후보 선택 모형 결과

〈표 2〉는 종속변수를 박영선 후보 선택 여부(박영선 후보 선택=1, 나머지 후보 선택=0)로 설정한 로지스틱 회귀모형 결과이다. 다양한 변수에서 후보 선택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연계성을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다른 조건이 같다는 전제하에서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호감도가 높거나 대통령 국정운영을 긍정적으로 보거나 정부의 백신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경우 박영선 후보 선택 가능성은 크게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지면 제한으로 인해 가설과 관련한 변수에 초점을 맞추어 결과를 해석하고자 한다.

〈표 2〉 박영선 선택 분석: 로지스틱 회귀모형

구분	변수	모형 (1)		모형 (2)	
		회귀계수 (표준오차)		회귀계수 (표준오차)	
인구학적	성별	0.018	(0.173)	0.910***	(0.324)
	X세대	0.838***	(0.204)	0.623*	(0.376)
	IMF세대	0.304	(0.220)	-0.127	(0.411)
	밀레니얼세대	-0.223	(0.231)	-0.184	(0.414)
	강남 3구	-0.349*	(0.205)	-0.336	(0.401)
사회경제적	교육	-0.033	(0.046)	-0.067	(0.092)
	소득	0.000	(0.000)	0.000	(0.000)
	자산	-0.079***	(0.027)	-0.068	(0.051)
	정규직	-0.010	(0.163)	0.097	(0.309)
	무주택	-0.248	(0.191)	-0.288	(0.341)
재보궐	시정운영평가			0.071	(0.265)
	삶의 질			-0.347	(0.234)
현 정부 중간평가	대통령 국정운영평가			0.683***	(0.246)
	부동산 정책			0.373	(0.230)
	백신수급 정책			0.460**	(0.192)
	국가경제평가			0.298	(0.257)
정치변수	더민주 정체감			0.617*	(0.335)
	국민의힘 정체감			0.489	(0.656)
	더민주 호감도			0.659***	(0.101)
	국민의힘 호감도			-0.673***	(0.083)
	정책태도			-0.580	(0.909)
쟁점	LH사태			-0.613***	(0.165)
	내곡동땅			-0.514**	(0.237)
성차별주의	현대적 성차별주의(MS)	-2.336***	(0.435)	-0.635	(0.888)
	적대적 성차별주의(HS)	-1.619***	(0.432)	-1.458*	(0.781)
	온정적 성차별주의(BS)	-0.149	(0.394)	1.693**	(0.802)
	상수	-0.812*	(0.505)	-1.725	(1.622)
표본수		922		907	
Pseudo R ²		0.11		0.68	

주: *: p < 0.1; **: p < 0.05; ***: p < 0.01.

우선 모형(1)은 인구학적 변수와 사회경제적 지위 변수만을 통제변수로 둔 기본모형이다. 양가적 성차별주의 가운데 적대적 성차별주의 수준만이 여성 후보 선택과 부정적으로 연계될 것으로 기대한 [가설1]은 뒷받침되었다.

한편, 현대적 성차별주의 수준이 높은 유권자는 성추행 문제로 보궐선거 원인을 제공한 정당 소속 후보를 선택하는 것을 덜 주저할 것으로 예상한 [가설2]와 반대되는 결과를 얻었다. 전술했듯이 이는 현대적 성차별주의 수준이 높을수록 그동안 한국 사회에서 성평등 인식 수준이 낮다고 평가받아온 보수정당 소속 후보를 선택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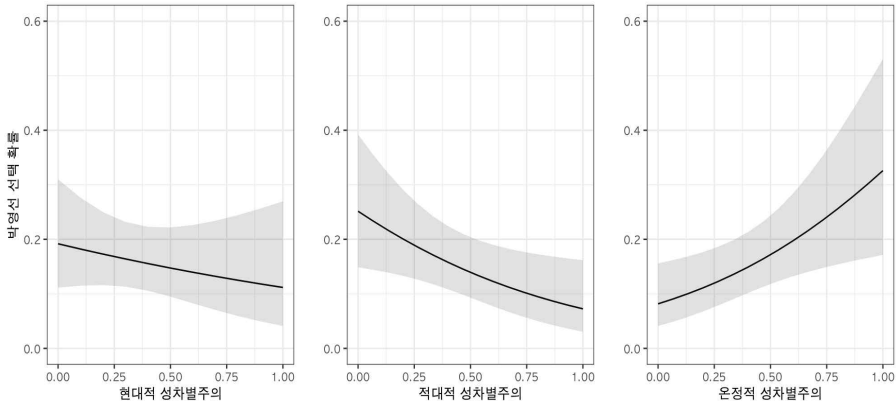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모형(2)에서 바뀌게 된다. 모형(2)는 선행연구 결과를 반영한 종합모형으로 기본모형에 지역 선거로서의 특징, 즉 전임 시장의 시정운영과 삶의 질 개선에 대한 평가는 물론 현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 변수, 정치변수, 선거 전에 제기된 쟁점을 추가로 포함한 것이다. 모형(1)과 비교할 때 가성 R^2 은 0.11에서 0.68로 크게 향상된다.

우선 여성 유권자가 여성 후보(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를 선택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양가적 성차별주의는 신뢰수준 90%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 다른 변수를 통제한 상황에서도 적대적 성차별주의가 강한 경우 여성 후보인 박영선 후보 선택의 가능성은 적었다. 반면, 온정적 성차별주의가 강한 경우 여성 후보인 박영선 후보 선택의 가능성이 오히려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모형(2)에서 [가설1]은 부분적으로 지지가 되었다.

그러나 현대적 성차별주의 수준이 높을수록 성추행 문제로 보궐선거 원인을 제공한 정당 소속 후보(박영선) 선택을 꺼릴 것으로 예상한 [가설2]는 더 이상 통계적으로 뒷받침되지 않았다. 이는 앞서 언급하였듯이 더불어민주당이 성추행과 관련해 서울 및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초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간 보수정당은 성평등과 관련해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태도를 가진 것으로 인식하는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비록 통계 결과가 불안정하지만, 모형 선택(model selection)의 관점에서 볼 때 모형(1)보다는 모형(2)가 더 낫다고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모형(2)에 기반해 성차별주의의 박영선 후보 선택에 대한 한계효과를 확인해 보았다. <그림 1>은 그 결과를 보여준다. 선거에서 유권자 선택에 필수적인 여러 설명변수를 포함한 상황에서 양가적 성차별주의는 상반되는 결과를 낳았다. 즉 적대적 성차별주의는 여성 후보인 박영선을 선택할 가능성을 낮추지만, 온정적 성차별주의는 그 선택 가능성을 높이는 경향성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¹¹⁾

〈그림 1〉 성차별주의와 박영선 후보 선택



2. 시정운영 평가 모형 결과

이제 성추행 의혹으로 고소당한 상태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전임 서울시장의 시정운영 평가에도 생물학적 성과 성차별주의가 연관성을 보이는지 확인해 보겠다. <표 3>은 전임 서울시장의 시정 운영에 대한 평가(4점 척도로 측정)를 순위형 로지스틱 회귀모형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회귀모형은 성차별주의가 시정운영 평가에 대해 지니는 연관성을 과대 추정하지 않기 위해 앞서 제시한 인구학적 변수, 사회경제적 변수, 정치변수와 쟁점 변수를 통제하였다.

성차별주의와 이념 성향 간 연계에 주목하여 가설을 수립했음을 상기하면, 이념 성향이 전임 서울시장의 시정운영 평가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을 것이라는 예상은 어렵지 않다. 중요한 점은 이러한 이념 성향이 성차별주의에 따라 조절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가설3]과 [가설4]가 이러한 전제하에 도출된 것이다. 조절효과를 파악할 수 있는 가장 쉬운 통계적 방법은 상호작용변수(interaction term)를 회귀모형에 포함하는 것인데, 모형(4)가 이에 해당한다.

11) 물론 음영으로 표현된 90% 신뢰구간을 고려하면, 양가적 성차별주의의 한계효과 해석에는 제약이 따른다.

〈표 3〉 박원순 서울시장 시정운영 평가 분석: 순위형 로지스틱 회귀모형

구분	변수	모형 (3)		모형 (4)	
		회귀계수(표준오차)		회귀계수(표준오차)	
인구학적	여성	0.169	(0.124)	0.237	(0.144)
	X세대	0.590***	(0.183)	-0.177	(0.168)
	IMF세대	0.127	(0.190)	-0.520***	(0.149)
	밀레니얼세대	-0.209	(0.172)	-0.013	(0.153)
	여성 : X세대	-0.575***	(0.213)	-0.351***	(0.117)
	여성 : IMF세대	-0.287	(0.227)	0.157*	(0.090)
	여성 : 밀레니얼세대	-0.397*	(0.237)	-0.969***	(0.213)
	강남 3구	-0.238	(0.159)	-0.008	(0.180)
사회경제적	교육	-0.028	(0.035)	0.026	(0.039)
	소득	0.000	(0.000)	0.000	(0.000)
	자산	-0.048***	(0.018)	0.004	(0.021)
정치변수	대통령 국정운영			0.627***	(0.116)
	더민주 정체감			0.070	(0.204)
	국민의힘 정체감			0.259	(0.230)
	더민주 호감도			0.265***	(0.042)
	국민의힘 호감도			-0.079**	(0.036)
	정책태도			-1.926***	(0.172)
쟁점	내곡동 의혹 평가			-0.510***	(0.100)
성차별주의	현대적 성차별주의(MS)	-2.450***	(0.218)	0.857***	(0.212)
	적대적 성차별주의(HS)	-0.548***	(0.169)	3.054***	(0.164)
	온정적 성차별주의(BS)	-0.404***	(0.123)	0.312*	(0.183)
	정책태도 : 현대적 성차별주의(MS)			-1.179***	(0.142)
	정책태도 : 적대적 성차별주의(HS)			-5.823***	(0.107)
	정책태도 : 온정적 성차별주의(BS)			-0.731***	(0.085)
	표본 수	922		907	
	Pseudo R ²	0.04		0.33	

주: * p<0.1; **p<0.05; *** p<0.01. 순위형 로지스틱 회귀모형에서 절편은 생략함.

우선 기본적인 모형 결과부터 확인해 보겠다. 모형(3)은 인구학적 변수와 사회경제적 지위 변수만을 통제변수로 둔 것이다.¹²⁾ 이 모형에서 여성 유권자라고 해서 박원순 시장의 시정운영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것은 아니라는 점이 확인되었다. 반면, 세 가지 성차별주의 모두는 시정운영 평가와 부정적으로 연결되었고,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4)은 성차별주의가 이념(정책 태도)과 연계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기본 모형에 대통령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를 비롯한 정치변수, 선거를 앞두고 쟁점이 된 오세훈 후보의 내곡동 땅 의혹에 관한 태도 외에 이념 성향(정책 태도)과 성 인식과 관련한 변수 간 상호작용변수를 포함한 것이다. 그 결과 가성 R^2 는 0.04에서 0.33으로 뚜렷하게 증가하고, 모형(3)과는 달리 성차별주의 변수의 회귀계수 방향은 음수에서 양수로 바뀌지만, 정책 태도와 세 가지 성차별주의 간 상호작용변수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확인할 수 있다.

우선 모형(4)에서 생물학적 성별은 박 시장의 시정 운영에 대한 평가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연계를 보이지 않았다. 즉 단순히 여성 유권자라고 해서 성추행 혐의를 받은 박원순 전임 시장의 시정 운영을 부정적으로 평가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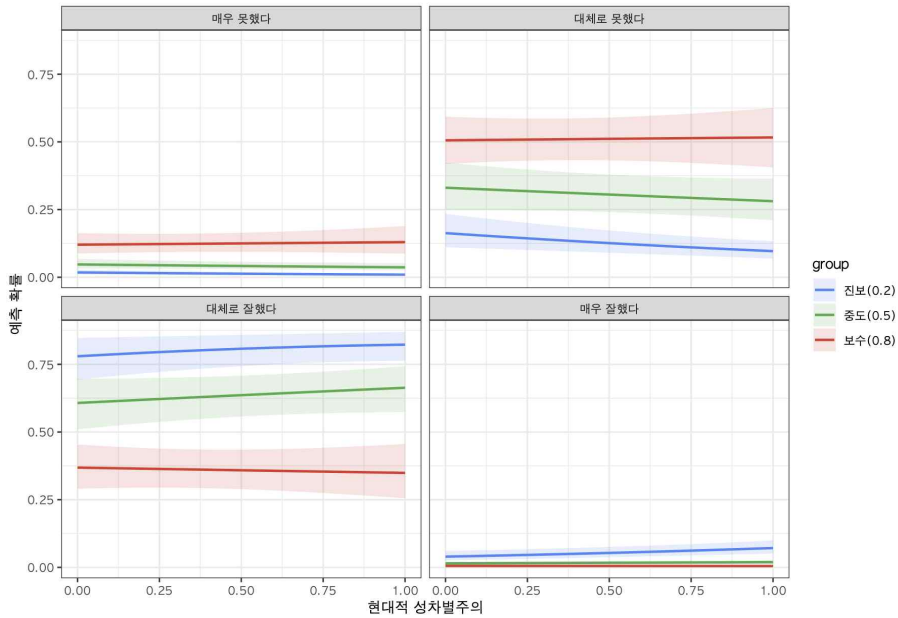
성차별주의와 이념 성향(정책 태도)을 연계한 결과는 쉽게 해석하기 어렵다. 특히, 성차별주의와 관련한 변수와 이념 성향 변수 모두 연속형 변수여서 위의 로지스틱 회귀모형에서 상호작용변수는 선형모형처럼 쉽게 해석할 수 없다는 어려움이 존재한다. 해석의 편리함을 위해 결과를 시각화해 보았다. 우선 0(진보)부터 1(보수) 사이의 값으로 측정된 정책 태도를 진보(0.2), 중도(0.5), 그리고 보수(0.8)의 3개 범주로 설정하였다.

<그림 2>는 범주화한 정책 태도와 현대적 성차별주의에 따른 시정운영 평가 결과를 보여준다. 우선 모든 응답 결과에서 이념 성향에 따라 시정 운영에 관한 평가는 뚜렷하게 갈린다. 즉 정책 태도가 진보일 때 중도나 보수보다는 시정 운영에 긍정적 평가를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비록 현대적 성차별주의와의 연계가 뚜렷하게 나타나지는 않지만, ‘대체로 못했다.’ 패널(오른쪽 위 패널)에서 볼 수 있듯이 진보 성향 응답자 가운데 현대적 성차별주의 수준이 높아질수록

12) 모형(4)에서 모형(6)에 특정 세대와 여성 간 상호작용변수를 포함한 것은 박원순 전임 시장의 성추행 의혹에 관해 특정 세대 여성이 더 뚜렷하게 반응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이다. X세대(1970년대생)와 밀레니얼세대(1990년대생) 여성이 뚜렷하게 박원순 시장의 시정 운영에 부정적이라는 점이 확인되었다. 본 연구의 분석 초점이 세대별 성차에 맞춰져 있지 않아 더 상세한 해석이나 함의를 다루지는 않았지만, 이는 차후 연구에서 다루어 볼 수 있는 흥미로운 결과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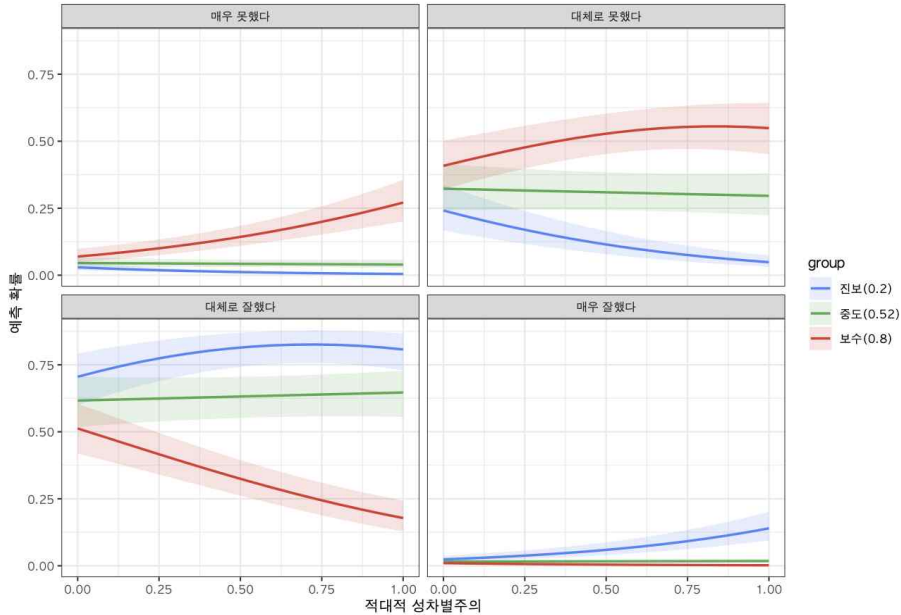
‘대체로 못했다’라고 응답할 가능성이 감소한다. 이처럼 현대적 성차별주의 수준이 높은 진보 성향의 유권자는 성추행 혐의를 받은 박원순 시장의 시정을 부정적으로 평가할 가능성은 작다는 점에서 [가설3]은 부분적으로나마 뒷받침된다.

〈그림 2〉 현대적 성차별주의와 정책 태도에 따른 시정운영 평가



〈그림 3〉은 정책 태도와 적대적 성차별주의 따른 시정운영 평가 결과를 보여 준다. 적대적 성차별주의 수준에 따라 이념 성향별로도 뚜렷한 차이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우선 ‘대체로 못했다’라고 응답할 가능성(오른쪽 위 패널)을 확인해 보자. 적대적 성차별주의 수준이 매우 낮은 경우 신뢰구간을 고려하면 이념 성향별로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적대적 성차별주의 수준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보수 성향의 응답자는 ‘대체로 못했다’라고 응답할 가능성이 정체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보수 성향의 유권자층에서 적대적 성차별주의 수준에 따라 시정운영에 관한 부정적 평가가 선형적으로 증가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반면, 진보 성향의 유권자층은 적대적 성차별주의 수준이 증가할수록 ‘대체로 못했다’라고 응답할 가능성은 뚜렷하게 감소함을 알 수 있다.

<그림 3> 적대적 성차별주의와 정책 태도에 따른 시정운영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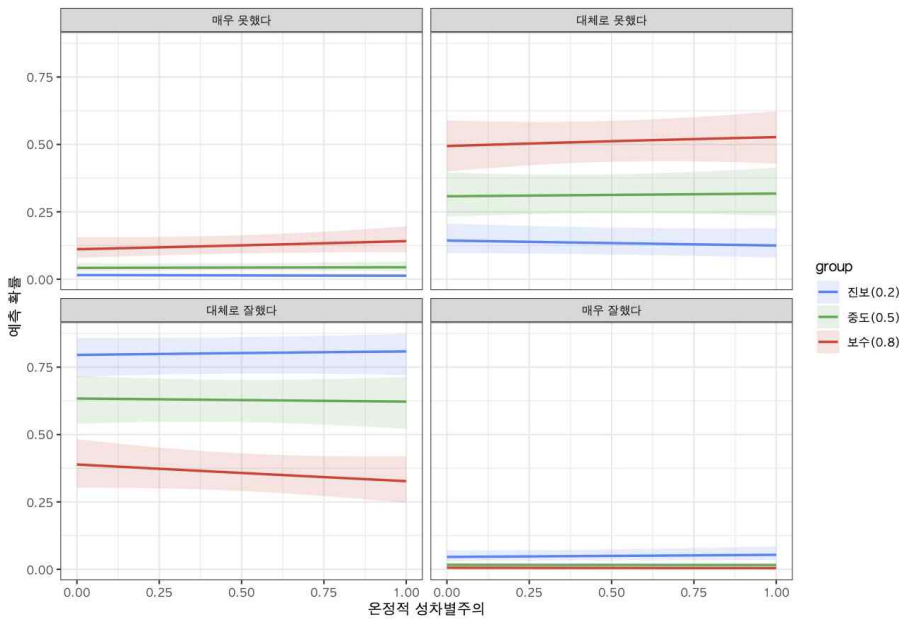


이제 '대체로 잘했다'라고 응답할 가능성(왼쪽 아래 패널)을 확인해 보자. 적대적 성차별주의 수준이 매우 낮은 경우 이념 성향별로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적대적 성차별주의 수준이 높아질수록 보수 유권자층에서 '대체로 잘했다'라고 응답할 가능성은 뚜렷하게 감소한다. 이는 보수 성향의 유권자층에서 적대적 성차별주의 수준이 높아질수록 박원순 시장의 시정 운영에 대한 부정적 평가 경향은 강해질 것으로 예측한 [가설4]를 강하게 뒷받침하는 결과이다. 한편, 진보 성향의 유권자들에서 적대적 성차별주의 수준이 높아질수록 '매우 잘했다'(오른쪽 아래 패널)라고 응답할 가능성은 뚜렷하게 상승한다는 점에 주목할만하다.

<그림 4>는 정책 태도와 온정적 성차별주의 따른 시정운영 평가 결과를 보여준다. 적대적 성차별주의와 비교해 볼 때 온정적 성차별주의 수준이 이념 성향에 따라 현격한 차이를 드러내지는 않는다. 네 개의 답변 가운데 그나마 이념 성향에 따라 차이가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은 '대체로 잘했다'로 확인됐다. 여기에서도 진보와 중도의 경우 온정적 성차별주의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대체로 잘했다'라고 응답(왼쪽 아래 패널)할 가능성에서 큰 변화를 보이지는 않는다.

상대적으로 보수의 경우 온정적 성차별주의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그 가능성이 약하게나마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3>과 <그림 4>의 결과를 종합하면, 보수 성향의 유권자층에서 적대적 성차별주의 수준이 높아질수록 박원순 시장의 시정 운영에 대한 부정적 평가 경향은 강해질 것이며, 이러한 경향성은 온정적 성차별주의에서는 상대적으로 약하게 나타나거나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예상한 [가설4]는 뒷받침된다고 정리할 수 있다.

<그림 4> 온정적 성차별주의와 정책 태도에 따른 시정운영 평가



V. 결 론

본 연구는 2021년 4월에 치러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대상으로 성차별적 인식 수준이 성추행 논란을 통해 보궐선거 원인을 제공한 전임 서울시장의 시정운영 평가 및 보궐선거 후보 선택에서 유의한 차이를 만드는지 설문조사 결과를 사용하여 경험적으로 검증해 보았다. 이를 위해 현대적 성차별주의(MS), 적대적

성차별주의(HS), 그리고 온정적 성차별주의(BS) 수준을 측정된 변수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보궐선거에서 후보 선택과 관련해 인구학적 변수, 사회경제적 지위 변수를 비롯해 전임 시장의 시정 운영, 현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 변수, 정치변수, 선거 전에 제기된 쟁점을 포함한 종합모형에 따르면, 양가적 성차별주의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 적대적 성차별주의가 강한 경우 여성 후보인 박영선 후보 선택의 가능성은 적지만, 온정적 성차별주의가 강한 경우 여성 후보인 박영선 후보 선택의 가능성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적대적 성차별주의에서만 여성 후보 선택 가능성을 적게 예상한 가설을 부분적으로나마 뒷받침하는 결과이다. 반면, 현대적 성차별 인식과 관련한 가설은 지지가 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로부터 (1) 여당(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장의 성추행 문제로 인해 보궐선거가 치러졌으나, 현대적 성차별주의 시각은 보수 야당을 더 성차별적이라고 보는 기존 정당 인식과 연계되어 있고, (2) 적대적 성차별주의 수준이 높은 유권자는 여성 후보 선택에는 부정적이며, (3) 여당 소속 여성 후보에 대한 지지는 세 개의 성차별주의 가운데 온정적 성차별주의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전임 시장의 시정운영에 관한 평가 분석을 통해 우선 단순히 여성 유권자라고 해서 박원순 전임 시장의 시정 운영을 부정적으로 평가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보궐선거에서 후보 선택의 경우와는 달리 현대적 성차별주의는 진보층이 박원순 시장의 시정을 덜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에 약하게나마 일조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정책태도(이념)와 적대적 성차별주의 따른 시정운영 평가 결과에 따르면, 적대적 성차별주의가 일정 수준을 넘으면 보수 성향의 응답자는 시정 운영을 '대체로 못했다'라고 응답할 가능성이 정체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적대적 성차별주의 수준이 높아질수록 보수층이 '대체로 잘했다'라고 응답할 가능성은 뚜렷하게 감소한다. 반면, 온정적 성차별주의에 따른 시정운영 평가 결과에 따르면, 진보와 중도의 경우 온정적 성차별주의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대체로 잘했다'라고 응답할 가능성에서 큰 변화를 보이지는 않는다. 반면, 보수의 경우 온정적 성차별주의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그 가능성이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적대적 성차별주의에서 같은 응답을 할 가능성과 비교하면, 그 연관성은 훨씬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온정적 성차별주의가 이념 성향에 따라 박원순 시장의 시정운영 평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적대적 성차별주의와 비교해 그 강도는 약할 것이라는 가설을 뒷받침하는 결과이다. 정리하면, 박원순

전 시장의 시정운영을 평가할 때 성차별주의는 이념 성향과 연계되어 나타나는 데, 그 연결 강도는 적대적 성차별주의에서 가장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궐선거 직후에는 여당 후보의 참패를 분석하며 '20대 남자의 반란과 같은 자극적 수사가 언론에서 홍수를 이루었다. 그리고 이는 젠더 및 세대 갈등으로 전화될 가능성을 보인다. 그러나 지금이야말로 집합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단순한 성별·세대별 분석을 넘어 더욱더 본질적이고 체계적인 결과 분석이 필요한 시점이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에서 검증된 유권자의 후보 선택을 설명하는 변수는 물론 보궐선거라는 특수한 맥락까지 고려하였다. 그러한 상황에서도 성차별주의가 유권자의 후보 선택은 물론 단체장의 시정운영 평가를 설명할 수 있는 변수라는 점을 확인하였다. 특히, 성차별주의는 이념 성향(정책 태도)과 연계될 때 시정운영 평가에 뚜렷한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음이 드러났고, 이는 정치적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는 현 한국의 정치 현실에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무엇보다 본 연구의 가설 검증 결과들은 생물학적 성별 변수에만 초점을 맞추거나 그마저도 간과해온 국내 선거 및 정치연구 방향에 새로운 함의를 줄 것으로 기대한다.

참고문헌

국문 자료

- 구본상. 2021. “성차별 인식은 대선 후보 선택에 영향을 주는가?: 제19대 대통령선거 분석.” 『한국정당학회보』 20(2), 41-82.
- 김기동·이재목·정다빈. 2020. “성차별주의의 정치적 및 감정적 효과: 한국 유권자들에게 대한 실험연구.” 『한국사회학』 54(4), 41-82.
- 김진영. 2018. “서울광장에서 퀴어문화축제 허용한 박원순 시장 고발.” 『크리스천투데이』 (7월 13일). <https://www.christiandaily.co.kr/news/314306> (2021/09/28 검색).
- 박상희·김혜숙. 2007. “적대적 및 온정적 성차별주의 남성성에 대한 노출이 사회의 공정성과 자기 지각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 연차 학술 발표 논문집』 1, 400-401.
- 박원호·신화용. 2014. “정당 선호의 감정적 기반: 세월호 사건과 지방선거를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48(5), 119-142.
- 안미영·김혜숙·안상수. 2005. “적대적/온정적 성차별주의와 전제/민주방식의 여성 지도자에 대한 평가.”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9(2), 17-38.
- 안상수·김혜숙·안미영. 2005. “한국형 양가적 성차별주의 척도(K-ASI) 개발 및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9(2), 39-66.
- 이하나. 2017. ““설거지”에 ‘돼지 발정제’까지... 바닥 드러낸 홍준표의 ‘젠더 감수성.’” 『여성신문』 (4월 22일).
- 장승진. 2012. “제19대 총선의 투표 선택: 정권심판론, 이념 투표, 정서적 태도.” 『한국정치학회보』 46(5), 99-120.
- 정성조. 2020. ““피해호소인’인가 ‘피해자’인가... 박원순 고소인 지칭 논란.” 『연합뉴스』 (7월 16일). <https://www.yna.co.kr/view/AKR20200715177300004> (2021/09/29 검색).
- 조진만·최준영·가상준. 2006. “한국 재·보궐선거의 결정요인 분석.” 『한국정치학회보』 40(2). 75-100.
- 진영재·조진만. 2002. “한국 재·보궐선거의 특징을 파악하기 위한 분석틀 제시와 사례분석: 김영삼과 김대중 정권기를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36(1). 185-202.
- 최준영·조진만. 2005. “지역균열의 변화 가능성에 대한 경험적 고찰: 제17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나타난 이념과 세대 균열의 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39(3), 375-394.

최준영·조진만. 2011. “변화하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중앙정치 대 지역정치.” 『한국정당학회보』 10(2), 133-156.

영문 자료

- Altemeyer, Bob. 1981. *Right-Wing Authoritarianism*. Winnipeg: University of Manitoba Press.
- _____. 1998. “The Other Authoritarian Personality.”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30, 47-92.
- Barreto, Manuela & Naomi Ellemers. 2005. “The Burden of Benevolent Sexism: How It Contributes to the Maintenance of Gender Inequalities.”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35(5), 633-642.
- Bornatici, Christina, Jacques-Antoine Gauthier & Jean-Marie Le Goff. 2020. “Changing Attitudes Towards Gender Equality in Switzerland (2000-2017): Period, Cohort and Life-course effects.” *Swiss Journal of Sociology* 46(3), 559-585.
- Campbell, Angus, Philips E. Converse, Warren E. Miller & Donald E. Stokes. 1960. *The American Voter*. New York: John Wiley & Sons.
- Cassese, Erin C. & Mirya R. Holman. 2019. “Playing the Woman Card: Ambivalent Sexism in the 2016 U.S. Presidential Race.” *Political Psychology* 40(1), 55-74.
- Christopher, Andrew N. and Mark R. Wojda. 2008. “Social Dominance Orientation, Right-Wing Authoritarianism, Sexism, and Prejudice Toward Women in the Workforce.”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32(1), 65-73.
- Glick, Peter & Susan T. Fiske. 1996. “The Ambivalent Sexism Inventory: Differentiating Hostile and Benevolent Sexism.”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0(3), 491-512.
- _____ & Susan T. Fiske. 2001. “An Ambivalent Alliance: Hostile and Benevolent Sexism as Complementary Justifications for Gender Inequity.” *American Psychologist* 56(2), 109-118.
- _____ & Susan T. Fiske, Antonio Mladinic, José L Saiz, Dominic

- Abrams, Barbara Masser, Bolanle Adetoun, Johnstone E., Osagie, Adebowale Akande, Amos Alao, Barbara Annetje, Tineke M. Willemsen, Kettie Chipeta, Benoit Dardenne, Ap Dijksterhuis, Daniel Wigboldus, Thomas Eckes, Iris Six-Materna, Francisca Expósito, Miguel Moya, Margaret Foddy, Hyun-Jeong Kim, Maria Lameiras, Maria José Sotelo, Angelica Mucchi-Faina, Myrna Romani, Nuray Sakalli, Bola Udegbe, Mariko Yamamoto, Miyoko Ui, Maria Christina Ferreira & Wilson López López. 2001. "Beyond Prejudice as Simple Antipathy: Hostile and Benevolent Sexism across Cultur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9(5), 763-775.
- Inglehart, Ronald & Pippa Norris. 2000. "The Developmental Theory of the Gender Gap: Women's and Men's Voting Behavior in Global Perspective." *International Political Science Review* 21(4), 441-463.
- Masser, Barbara & Dominic Abrams. 1999. "Contemporary Sexism: The Relationships among Hostility, Benevolence, and Neosexism."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23(3), 503-517.
- Ratliff, Kate A., Liz Redford, John Conway & Colin Tucker Smith. 2019. "Engendering Support: Hostile Sexism Predicts Voting for Donald Trump over Hillary Clinton in the 2016 U.S. Presidential Election." *Group Process & Intergroup Relations* 22(4), 578-593.
- Swim, Janet, Kathryn Aikin, Wayne Hall & Barbara Hunter. 1995. Sexism and Racism: Old-Fashioned and Modern Prejudic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8(2), 199-214.
- _____, Robyn Mallett & Charles Stangor. 2004. "Understanding Subtle Sexism: Detection and Use of Sexist Language." *Sex Roles* 51(3-4), 117-128.
- Valentino, Nicholas A., Carly Wayne & Marzia Oceno. 2018. "Mobilizing Sexism: The Interaction of Emotion and Gender Attitudes in the 2016 US Presidential Election." *Public Opinion Quarterly* 82(S1), 799-821.

Abstract

A Sexism-based Analysis of the Seoul Mayoral By-election of 2021

Bon Sang Koo ■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Jun Young Choi ■ Inha University

Junseok Kim ■ Dongguk University-Seoul

This study examines the association between sexist perception and vote choices in the Seoul mayoral by-election of 2021 caused by the mayor's sexual harassment. Employing the survey data with variables measuring the levels of modern, hostile, and benevolent sexism, the study finds the following. First, modern sexism is associated with recognizing that the conservative opposition party is considered more sexist. Second, voters with a high level of hostile sexism are negative in choosing female candidates, while benevolent sexism enhances support for the female ruling party candidate. Third, modern sexism contributes to a less negative evaluation of the liberal mayor's performance. Lastly, the effect of sexism is moderated by ideology when voters evaluate the mayoral performance, and the association is the strongest in hostile sexism. These findings confirm that sexism is a significant variable that can explain vote choices and the mayoral approval ratings after controlling for variables associated with voting behavior and also provide implications for polarized Korean politics.

Key Words: modern sexism, hostile sexism, benevolent sexism, by-election, ideology